

##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김문희\*

〈차  
례〉

1. 머리말
2.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 양상
3.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4.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소설, 웹툰 드라마로 스토리텔링되는 『옷소매 붉은 끝동』에 나타나는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 활용 양상과 그 효과와 의미를 논의하는 것이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소설로 창작된 후 웹툰과 드라마로도 각색된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작품이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은 전기수(傳奇叟)를 통한 고전소설 향유 방식을 공통적으로 활용한다. 또한 궁녀의 공동 필사, 고전소설의 독서 양상, 세책점(貰冊店)을 통한 고전소설의 유통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 인식도 잘 드러난다.

소설에서 웹툰, 드라마로 각색되는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에서는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 제작과 독서 양상, 유통 방식을 활용하고,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 평가, 인식을 활용함으로써 세 가지 효과와 의미가 드러난다. 인물 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을 창조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이것은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이다.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는 긴장을 만들고 해소하기도 하며, 웃음을 만들어 흥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드러

\* 경기대 진성예교양대학 조교수

낸다. 이것은 드라마와 웹툰으로 전환되면서 창출되는 효과이다. 독자와 시청자의 수용 측면에서는 독자와 시청자가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이것은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이다.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성공적인 콘텐츠가 창작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고전소설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작가를 비롯하여 콘텐츠 창작자나 대중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전소설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고전소설 연구자의 몫이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옷소매 붉은 끝동, 소설, 웹툰, 드라마, 스토리텔링, 고전소설 지식, 성격 창조, 흥미 창출, 지식과 교양 함양

## 1. 머리말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의빈 성씨 덕임과 정조의 사랑을 그린 강미강의 사극 로맨스 소설이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2017년 도서출판 청어람에서 2권의 책으로 출판되었고, 그후 리디북스, 네이버 시리즈, 알라딘, 카카오페이지 등 인터넷 콘텐츠 플랫폼에서도 웹소설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그 인기에 힘입어 2021년 10월 1일부터는 웹툰으로 각색되어 카카오페이지, 카카오 웹툰에서 연재되고 있으며, 현재 2022년 8월 11일까지 70화가 연재되었다. 또한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 MBC 17부작 드라마로 만들어져 높은 시청률<sup>1)</sup>을 보였다.

이처럼 『옷소매 붉은 끝동』은 먼저 소설로 출판된 후 웹소설로 제공되고, 웹툰과 드라마라는 각기 다른 매체로 각색된 대표적인 크로스미디어

1)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시청률은 1회는 5.7%로 낮은 수치이지만 7회부터 10.7%를 넘으면서 점점 상승하여 17회는 17.4%로 최고의 시청률을 보여주었다.

스토리텔링의 작품<sup>2)</sup>이다.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매체 전환을 위한 원작 각색 스토리텔링이며, 여기서 각색은 스토리의 복제가 아닌 반복을 의미<sup>3)</sup>한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소설(웹소설)을 기본 콘텐츠로 하여 웹툰, 드라마로 각색한 OSMU(One Source Multit Use)이며, 소설-웹툰-드라마 모두가 대중에게 사랑받았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대표적 성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원천 서사인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정조와 후궁 의빈 성씨 덕임이라는 역사적 인물에 기반하여 창작된 콘텐츠이다. 정조는 조선의 대표적인 성군으로 유명한 인물이지만 후궁인 의빈 성씨 덕임은 정조에 비해 널리 알려진 인물은 아니다.<sup>4)</sup>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궁녀에서 후궁이 되는 성덕임이라는 여성 인물에 초점을

- 
- 2) 소설에서 웹툰, 드라마로 각색된 『옷소매 붉은 끝동』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단행본: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2권, 청어람, 2017.  
웹소설: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5권, <https://ridibooks.com>.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5권(단행본), 『옷소매 붉은 끝동』 1~117화(연재본), <https://series.naver.com>.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5권, <https://www.aladin.co.kr>.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5권(단행본), 『옷소매 붉은 끝동』 1~117화(연재본), <https://page.kakao.com>.  
웹툰: 글:도파민, 그림:creativeSUMM, 원작: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70화 연재중(2022, 8, 11.), <https://page.kakao.com>, <https://webtoon.kakao.com>.  
드라마: 연출:정지인·송연화, 극본: 정해리, 『옷소매 붉은 끝동』 1~17회, 2021.11.12. ~ 2022.01.01. MBC방영.
  - 3) 서성은,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7쪽.
  - 4) 2007년에 방영된 MBC 드라마 『이산』에서도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이 그려지면서 의빈 성씨의 존재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 그러나 드라마 『이산』에서 의빈 성씨의 이름은 ‘성송연’이었고 10살 때 부모가 역병으로 죽고 입궁하여 궁녀가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화원이었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미술에 재능이 있고 도화서의 다모가 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설정은 그 당시 의빈 성씨에 대한 자세한 역사적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드라마 『이산』은 정조의 파란만장한 삶에 초점이 있는 드라마로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처럼 주체적인 여성 의빈 성씨가 부각되지는 못했다.

두고 덕임과 정조의 로맨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궁녀 덕임의 인물 형상화이다. 덕임은 궁녀이면서도 글씨를 매우 잘 쓰고 필사에 능하며, 소설을 많이 읽고 궁중의 다른 사람들에게 소설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또한 덕임은 다른 궁녀들과 함께 국문장편소설인 <곽장양문록> 을 필사한다. 이처럼 『옷소매 붉은 끝동』 은 작가가 고전소설의 향유와 제작 과정, 독서 상황, 유통과 같은 고전소설 관련 지식을 조사하고 참고하여 창작된 소설이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 은 정조와 의빈 성씨라는 역사적 인물을 한 축으로 하면서도 조선시대 고전소설에 대한 배경과 지식을 또 한 축으로 구성한 작품이기도 한 것이다. 이점은 웹툰과 드라마로 매체가 전환되고 이에 맞는 스토리로 각색되었을 때도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옷소매 붉은 끝동』 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어떤 콘텐츠보다 고전소설의 향유와 제작과 독서 양상, 유통 방식, 소설에 대한 소개, 평가, 인식 등과 같은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토리를 구성하였다.

그동안은 고전소설을 원천 소스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작품 내용, 등장 인물, 사건, 모티프 등을 활용하여 영화나 드라마 등으로 각색하거나 변용하는 경우<sup>5)</sup>가 많았다. 그러나 고전소설의 내용을 스토리텔링하는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의 향유, 제작 과정과 유통 방식,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 평가와 같은 부분을 소설 창작에 활용하고 이것을 웹툰과 드라마에서 반복해서 각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옷소매 붉은 끝동』 의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의 독특성은 바로 여기에 있으며, 현대 독자와 시청자들에게 각

5) 그런데 문화콘텐츠로 각색되거나 변용되는 작품은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홍길동전>, <장화홍련전> 등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다. 권순궁, 옥종석은 고전소설의 콘텐츠가 몇몇 작품에 집중됐다는 것은 풍성한 콘텐츠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순궁·옥종석, 「고전소설과 콘텐츠, 그 제작 양상과 개발의 전망-영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5-6쪽.

광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옷소매 붉은 끝동』의 독특성에 주목하여 소설-웹툰-드라마로 각색되어 스토리텔링되는 『옷소매 붉은 끝동』 속 고전소설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설, 웹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에 나타난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 활용 양상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효과와 의미를 논의할 것이다.

## 2.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 양상

### 1) 전기수(傳奇叟)를 통한 고전소설 향유 방식의 활용

조선 후기에는 소설 향유층이 확대되고 대중적인 기반을 마련하면서 직업적으로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傳奇叟)가 등장한다. 전기수에 대한 기록은 조수삼의 『추재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노인은 동대문 밖에 산다. 언문으로 쓴 이야기책을 입으로 줄줄 외우는데 『숙향전』, 『소대성전』, 『심청전』, 『설인귀전』 따위의 전기소설(傳奇小說)들이다. 매달 초하루에는 청계천 제일교 아래서, 초이틀에는 제이교 아래서, 초사흘에는 이현에서, 초나흘에는 교동 입구에서, 초닷새에는 대사동 입구에서, 초엿새에는 종루 앞에 앉아서 읽었다. <중략> 노인이 전기소설을 잘 읽었기 때문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주변을 빙 둘러 에워쌌다. 소설을 읽어가다 몹시 들을 만한, 가장 긴장되고 중요한 대목에 이르르면 노인은 갑자기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음 대목을 듣고 싶어서 앞다투어 돈을 던지면서 “이야말로 돈을 달라고 하는 방법이야!”라고 했다.(조수삼 지음, 안대회 옮김, 『추재기이』, 한겨레출판, 2010, 119~121쪽)

전기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한양의 주요 장소에서 한달마다 날짜를 정해놓고 같은 장소에서 인기있던 한글 소설을 읽어주고 돈을 받는 직업적 낭독사이다. 전기수는 가장 긴장감 넘치고 중요한 대목에서 소설 읽기를 멈춘다. 청중들이 다음 내용을 듣고 싶어 다투어 돈을 내면 전기수는 그 다음 대목을 읽는 것이다. 전기수가 청중들 앞에서 소설을 읽는 것은 전문 낭독사가 읽어주는 소설을 귀로 듣는 고전소설의 향유 방법을 잘 보여준다.

이와 같은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의 향유 방법은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활용된다. 궁녀로 들어간 주인공 성덕임은 소설 읽기를 좋아하고 필사에도 능하다. 덕임은 어린 궁녀들에게 재미있는 소설을 읽어주는 전기수 놀이를 한다.

② “천자께서 고민하다 왈, 평국이 여자면 어찌 전장에 나가 적군을 사멸하고 왔으리요? 다만 평국의 얼굴은 도화빛이요, 체신은 잔약하니 미심쩍기도 하다. 어쨌든 의원은 아직 누설치 마라 신신당부하시더라.” 막 흥미진진해지려는 참인데, 어째서인지 덕임은 책을 탁 덮어 엉덩이에 아래 깔고 앉아버렸다. <중략> “답답해 죽겠네! 왜 읽다 말아?” “넌 눈치도 없니? 샅을 내놓으라는 거잖아.” <중략> “또? 벌써 닳았이나 췌잖아!” 야유와 탄식이 쏟아졌다. 그러나 덕임은 책을 옆구리에 끼더니 도섭스레 치마폭을 털었다. “싫음 말고 가야 뭐 가서 마저 읽으면 되니까.” 흥정하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었다. <중략> 복연을 필두로 다들 소매를 뒤져 푼푼이 엽전과 오색 구슬을 꺼냈다. 덕임은 고사리 같은 제 손에 차고 넘칠 샅을 받자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17, 9~11쪽)

덕임은 또래 생각시들을 모아놓고 <흥계월전> 을 읽으면서 천자가 남장을 한 흥계월이 여자가 아닌가 의심하는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고 책을 덮는다. 생각시들은 흥미진진한 대목에서 책 읽기를 멈추고 책 읽는 샅을 요구하는 덕임에게 불평을 드러내면서도 엽전과 오색 구슬 등을 내놓고서

덕임의 소설 읽기를 듣는 것이다. 이처럼 덕임은 전기수 흥내를 내며 어린 시절부터 소설 읽기를 특기로 삼고 많은 궁녀들에게 소설을 읽어준다. 덕임의 전기수 놀이는 덕임이 소설 읽기에 능통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현대 독자에게는 생소하지만 조선시대에 전기수라는 직업적 낭독가가 고전소설을 읽어주고 고전소설을 향유했던 상황을 잘 그려낸다.

웹툰 『옷소매 붉은 끝동』 1화도 소설의 내용과 같이 전기수 놀이를 하는 덕임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고 있다. 웹툰의 경우는 소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드라마의 경우는 다르다. 드라마는 소설의 전기수 놀이를 드라마에 맞게 새롭게 창안하고 있다.

드라마 1회의 첫 장면은 덕임이 〈장화홍련전〉을 읽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설에서는 덕임이 〈홍계월전〉을 읽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드라마에서는 〈홍계월전〉 대신 〈장화홍련전〉을 읽는다. 그중 〈장화홍련전〉의 가장 극적인 장면인 죽은 장화와 홍련이 부사 정동우를 찾아오는 대목을 효과음(E)으로 덕임이 읽는 것으로 시작해서 동시에 이것을 극중극으로 재연한다. 밖에서 사또를 부르는 소리에 정동우가 두려워하며 밖으로 나가 장화와 홍련이 빠져죽은 연못으로 가까이 간다. 그런데 물속에서 두 소녀의 손이 갑자기 솟아 나와 정동우의 손을 붙잡는 순간 천둥 번개가 치고 극중 정동우가 비명을 지르는 것과 동시에 덕임의 소설 읽기를 듣고 있는 생각시들도 비명을 지르면서 두 장면이 오버랩되게 구성한다. 그러면서 덕임은 소설 읽기를 멈춘다. 생각시들에게 소설 읽어주는 샅을 요구하는 이른바 전기수의 요전법(邀錢法)을 보여준다.

이처럼 드라마는 덕임이 전기수 놀이를 하는 대목을 새롭게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1회부터 시청자의 이목을 사로잡아야 하는 드라마의 매체적 특성 때문에 시청자의 흥미와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덕임의 전기수 놀이를 첫회 시작 장면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드라마에서는 원천 서사인 소설에는 없는 전기수 모티프를 활용

하여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 위기감과 긴장감을 조성하는 구성이 더욱 빈번하게 나타난다.

드라마 2회에서는 성인으로 성장한 덕임이 궁녀들을 위해 소설을 읽는 장면이 나온다. 궁녀들의 축제 날을 준비하기 위해 덕임은 궁녀들을 모아 두고 패관소설을 읽는다. 멀리서 산(정조)과 겸사서 홍덕로는 이 모습을 지켜본다. 덕임은 제후국 왕실에서 있었던 두 형제의 비극 이야기를 읽어 준다. 같은 부모에게서 출생한 형제이지만 부왕이 아우를 사랑하고 형은 냉대하자 형은 아우를 향해 부왕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 덕임이 “어린 아우야, 너는 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났구나. 너로 인해 아버지의 총애를 잃고, 나는 끝없이 절망한다. 너는 제왕의 기쁨이고, 나는 아버지의 절망이다.”(정해리, 『옷소매 붉은 끝동: 정해리 대본집』 1, 137쪽) 라는 대목을 슬프게 읽자 산은 충격을 받는다. 덕임이 읽어주는 소설을 들으면서 산은 죽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죽기 직전에 산은 아버지를 찾아가지만 사도세자는 산에게 “저 아이가 있는 한, 나는 필요가 없어! 나를 죽이기 위해 태어난 아이란 말일세!”라고 말하고 나무함을 던져 산의 이마에 상처를 낸다. 덕임이 읽는 패관소설은 단순한 소설 읽기가 아니라 산의 가슴 속 아픈인 아버지 사도세자의 일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덕임이 읽는 패관소설은 현전하는 고전소설은 아니지만 소설 읽기가 듣는 사람의 마음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포착한 것이다.

한편으로 드라마에서는 덕임의 소설 읽기는 호환(虎患)에서 궁녀들을 구하는 계기로 새롭게 구성한다. 궁녀의 축제일에 호랑이가 궁궐에 출몰해 사람을 해치는 사건이 일어나자 산은 궁녀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덕임에게 소설을 읽게 한다. 덕임은 〈운영전〉을 읽겠다고 하면서 궁녀를 모으고 소설을 읽기 전 출생년에 따라 출입문으로 나가는 연습을 하게 한다. 호랑이가 궁궐에 나타날 때, 궁녀들이 놀라서 대혼란을



일으키며 출입문을 빠져 나갈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연습을 하고 있는 순간 호랑이가 궁궐에 출몰하고 궁녀들은 출입문을 빠져나가게 되고 호랑이는 산과 호위 병사들에게 포획된다. 이처럼 덕임의 소설 읽기는 궁궐에서 일어날 커다란 인명 피해를 막는 기지로 활용되는 것이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에서 소설 읽기를 멈추고 청중들의 애간장을 태우는 전기수의 소설 읽기 방법은 덕임이 위기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사건으로 새롭게 구성되기도 한다. 드라마 3회에서 산의 반대파들은 영조에게 세손이 영조의 허락 없이 군사를 움직여 호랑이를 잡았다는 이유로 산에게 죄를 내리라고 주청하고 영조는 이를 받아들여 산을 처벌하려고 한다. 덕임은 영조가 좋아하는 소설책을 필사하여 영조에게 바치자 영조는 덕임에게 사례비로 은화 한 냇을 주고 소원 하나를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한다. 덕임은 세손을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들은 영조는 불같이 화를 내며 덕임이 자신을 능멸한다고 하며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영조는 덕임을 죽이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묻는다. 덕임은 영조가 준 은화 한 냇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은화 한 냇이 너무 소중하며 은화 백 냇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뒷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진 영조는 은화와 관련된 덕임의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한다. 덕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죽음, 오라비와 이별한 사연을 이야기하고 훗날 다시 만날 오라비의 뒷바라지를 위해 백 냇을 모으고 있고 이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간곡한 마음을 이야기한다. 영조는 덕임의 이야기를 다 듣고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덕임을 살려준다.

은화 한 냇과 관련된 덕임의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영조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자극하고, 이어지는 덕임의 이야기는 영조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전기수가 중요한 대목에서 읽기를 멈추고 청중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돈을 버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 덕임

의 이야기하기 전략은 전기수의 요전법을 활용하여 죽을 위기에 빠진 덕임이 지혜롭게 위기를 모면하도록 하여 드라마의 긴장과 재미를 제공하는 모티프로 창작되고 이것은 소설과 다른 변형을 보여준다.

이처럼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인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 읽기를 주요한 사건으로 삼아 주인공 덕임의 소설, 문장에 대한 관심과 재능을 드러냈고 웹툰 역시 소설의 내용을 그대로 각색하여 스토리텔링하고 있다. 그러나 드라마에서는 소설에는 없는 전기수 이야기를 새롭게 만들어 사건을 전개하고 해결하면서 시청자의 관심과 흥미를 이끄는 모티프로 확장해서 스토리텔링하는 특이성을 보여준다. 이것은 소설과 웹툰과는 달리 드라마 매체의 특성에서 시도되는 새로운 창안이라고 할 수 있다.

## 2) 고전소설의 제작과 독서 양상, 유통 방식의 활용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궁녀의 집단 필사, 고전소설의 독서 양상, 세책점을 통한 고전소설의 유통 방식도 활용한다.

고전소설은 필사본, 방각본, 구활자본으로 만들어져 독자에게 유통되었다. 이중 필사본은 선행본을 보고 소설의 내용을 일일이 손으로 써서 완성한 것이다. 작품의 분량이 적을 때는 한 사람이 필사하기도 하지만 분량이 많을 때는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필사를 하여 고전소설을 완성하기도 한다. 국문장편소설의 경우는 대부분 필사를 통해 유통되었는데, 대부분 국문장편소설의 독자였던 규방 여성들이 직접 필사를 하였다.<sup>6)</sup> 궁중의 경우 궁녀들이 궁체의 훌륭한 글씨로 필사를 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는데<sup>7)</sup>,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와 궁녀들이 함께 필사했다는 <곽장양문록> 과 철

6)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 449쪽.

7) 김종철(1995), 위의 논문, 449쪽.

종의 후궁인 김상궁이 필사했다는 〈명주옥연기합록〉이 여러 궁녀가 공동으로 필사한 국문장편소설이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 덕임이 궁녀들과 〈곽장양문록〉을 필사해서 완성했다는 사실에 포착하여<sup>8)</sup> 소설의 인물과 사건을 구성한다. 소설에서 주인공 덕임은 글씨를 잘 쓰고, 소설을 많이 읽었으며, 문장 구사력도 좋아 고전소설을 필사하기에 제격인 인물이다. 덕임이 글씨를 잘 쓴다는 소문이 궁궐에 퍼지자 중전은 덕임을 불러 〈훈규례〉, 〈주자대전〉, 〈대학연의보〉 등을 필사하게 하고, 덕임에게 필사일을 알선해 주기도 한다. 덕임은 국문장편소설인 〈곽장양문록〉을 필사하는 일을 맡게 된다.

[3] 청연과 청선이라는 이름을 지닌 두 군주는 요절한 세자가 남긴 여식들로 일찍이 하가하여 시가에서 지냈다. 〈중략〉 두 군주는 이번 《곽장양문록 郭張兩門錄》 필사의 의뢰인이자 주도자였다. 장안에서 화제인 이 소설을 상감 마마께 올리기 위해 필사를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 도움이 필요했더라. 하여 중궁전과 상의해보니 덕임을 추천했고, 덕임은 막상 일을 맡고 보니 사십만 자에 달하는 분량을 도맡아 베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하여 친한 벼들에게 손을 뻗었다. 경희, 영희, 복연이 고맙게도 팔을 건어붙이고 도와주었다.(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17, 50~51쪽)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국문장편소설인 〈곽장양문록〉을 필사한 사람이 덕임이며 영조의 두 딸인 청연과 청선군주가 궁녀들에게 명하여 〈곽장양문록〉을 완성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덕임은 많은 분량의 소

8)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 2권 말미에는 작가 후기와 함께 〈곽장양문록〉 소개와 소설 창작에 참고한 문헌들이 제시되어 있다. 작가는 지연숙의 「〈몽옥쌍봉연록〉 - 〈곽장양문록〉 연작 연구」와 최길용의 「〈몽옥쌍봉연록〉 연작 연구」, 이병직의 「〈곽장양문록〉의 작품세계와 소설사적 위상」 등의 연구논문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설을 필사하기 위해 동료 궁녀인 경희, 영희, 복연과 함께 필사일을 한다. 덕임과 궁녀들은 여러 달에 걸쳐 <곽장양문록> 을 필사하여 완성한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곽장양문록> 의 필사자가 의빈(덕임)과 궁녀 경희, 영희, 복연이라는 고전소설 연구 결과<sup>9)</sup>를 바탕으로 덕임과 궁녀들의 캐릭터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활용하는 <곽장양문록> 의 필사는 궁녀들의 집단 필사로 고전소설이 제작되는 사례를 잘 보여준다.

또한 소설과 웹툰, 드라마에서는 <곽장양문록> 을 언급하면서 <곽장양문록> 의 전편이 <몽옥기린전(이창·몽옥쌍봉연록)> 이며 <곽장양문록> 의 후편이 <차천기합> 이라고 하면서 이들 작품이 3부로 창작되어 읽힌 연작형 소설이라는 사실을 여러 번 소개하고 있다. 먼저 소설에서는 <곽장양문록> 을 필사한 궁녀들이 <곽장양문록> 의 내용을 평가하면서 <몽옥기린전> , <곽장양문록> , <차천기합> 으로 이어지는 삼부작 연작물을 언급한다. 웹툰 8화에서는 영조가 <몽옥기린전> 과 <곽장양문록> 을 재미있게 읽었다고 청연군주가 말하는 부분이 있으며, 드라마 3회에서는 덕임이 영조에게 <곽장양문록> 을 필사하여 바치자 영조는 “그래, 곽장양문록! 몽옥쌍봉연록 뒤편 말이지? 그 소설이 꽤 재미지지”(정해리, 『옷소매 붉은 끝동: 정해리 대본집』 1, 212쪽)하며 반색한다. 소설, 웹툰, 드라마는 현대 독자에게 국문장편소설이 연작물로 창작되어 독자에게 읽혔다는 것을 알려준다. 조선시대 국문장편소설이 2부작, 3부작 등 연작물로 창작되고 읽혔다는 사실을 국문장편소설 중 하나인 <곽장양문록> 의 예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궁궐을 중심으로 국문장편소설이나 고전소설이 많이 읽혔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조선시대

9)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7, 13~14쪽.

소설의 독자층은 궁궐내 왕과 세자, 비빈 등과 사대부가 여성, 중인 계층이었다. 영조가 소설을 즐겨 듣고 읽었으며, 『승정원일기』에는 신하들이 밤이 늦었다며 영조에게 연일 잠을 못 주무시니 한글소설을 읽어드릴 테니 주무시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 것<sup>10)</sup>으로 보아 영조는 소설 애독자였다고 할 수 있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는 “늙은 왕은 소설책을 좋아한다. 왕이 정사를 마친 밤이면, 침소에 누워 연애소설을 읽다 잠든다는 건 궐내의 공공연한 비밀이다”(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52쪽)라고 하며 영조가 소설 읽기를 좋아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이 사실을 아는 손녀인 청연과 청선군주가 궁녀에게 국문장편소설을 필사하게 하여 영조에게 바치기도 한다. 웹툰 8화에서는 군주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덕임이 “상감마마께서 밤마다 연애소설을 읽다가 주무신다는 소문이 정말이었구나”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으며, 드라마에서는 영조가 누워서 소설을 읽는 것을 듣는 장면이 나온다.

임금뿐만 아니라 왕비와 후궁들도 조선시대 소설 독자였다. 왕비와 후궁은 궁밖의 소설 문화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이니, 양반집 여성들의 소설 문화가 궁궐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고, 반대로 궁궐의 소설 문화가 궁밖으로 흘러가기도 했는데, 공주나 옹주가 하가(下嫁)하여 궁밖으로 나가면서 소설 교류가 일어났다<sup>11)</sup>는 설명을 통해 보면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이러한 사실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청연군주와 청선군주가 소설을 열독하고 국문장편소설 필사를 주도하거나 이들이 읽고 싶은 소설을 덕임에게 필사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드라마에서는 중전의 처소에서 덕임이 <홍계월전>을 읽는 장면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설정은

10)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46~147쪽.

11) 정병설(2016), 위의 책, 147쪽.

소설의 작가가 궁궐내 왕과 비빈, 후궁들이 소설 독자였다는 것을 조사하고 이것을 소설에서 표현하고 드라마에서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현대 독자와 시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는 궁궐밖 세책점(貰冊店)에서 덕임이 소설을 빌려오고 자신이 필사한 것을 파는 장면도 적지 않게 설정되어 있다.

고전소설의 독자와 소설의 유통을 논의할 때 세책점은 고전소설의 활성화와 상업적 양상을 보여주는 시발점으로 본다. 세책점은 수요에 비해 시장을 통한 소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설을 상품으로 하여 등장한 업종으로, 소설을 즐겨 읽는 독자가 지속적으로 소설을 공급받을 수 있는 중개소가 되었다.<sup>12)</sup> 세책점에는 종류별로 많은 소설책을 구비해두고 손님을 끌었다. 특히 분량이 긴 장편소설을 많이 갖춰놓았는데 그것은 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였을 것이고, 이를 위해 세책점 주인들은 전문적인 소설 작가와 유대 관계를 맺고 이러한 장편소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도록 하였을 것<sup>13)</sup>이다. 체제공은 부녀자들이 비녀, 팔찌를 팔고 나중에는 빗까지 내어 책을 빌려본다고 했고, 이덕무가 여자들이 집안일을 하지 않고 가산을 축내면서까지 책을 빌려보니 이를 금해야 한다고 한 것을 보면 당시 세책점이 부녀자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었으며<sup>14)</sup> 고전소설의 상업적 유통이 활성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덕임이 휴가를 얻어 찾아가는 곳이 시전의 세책점으로 나온다. 덕임은 세책점의 주인과 어릴 때부터 친분이 있으며, 궁체로 필사한 〈이형경전〉을 세책점 주인에게 내놓자 주인은 궁체가 인기가 좋다고 하고 반가워하며 덕임에게 필사한 값을 쳐준다. 웹툰

12) 김종철(2015), 앞의 논문, 450쪽.

13) 김균태·정병헌·서인석·이승복·신해진·최귀묵,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45쪽.

14) 김균태·정병헌·서인석·이승복·신해진·최귀묵, 위의 책, 45쪽.

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그려지며 드라마에서는 더욱 빈번하게 세책점의 풍경이 나온다. 드라마에서는 산과 덕임이 동덕회 회합을 마치고 궁궐로 돌아오기 전에 세책점으로 들어간다. 세책점에서 산은 덕임에게 〈사서오경〉과 〈동국문헌비고〉를 사주며, 패관소설만 읽지 말고 이런 류의 책도 읽으라고 충고한다. 또한 휴가를 맞은 덕임은 동료 궁녀인 월혜와 함께 출궁하여 시전을 돌다 세책점에 들어가 책을 구경하고 좋아하는 소설책을 사오는 장면이 나온다. 또한 덕임은 산의 분노를 사서 출궁 당한 후 필사일을 해 세책점에 필사한 책을 팔고 생계를 유지하며, 세책점에서 〈이형경전〉을 구해서 청연군주에게 주기도 한다. 이처럼 『옷소매 붉은 끝동』의 소설, 웹툰, 드라마는 18세기 이후 번성했던 소설 대역소인 세책점을 독자와 시청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당대에 소설이 어떻게 유통되었는가를 자세히 재현한다.

### 3)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많은 고전소설이 등장하고 고전소설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을 원천 서사로 해서 각색되는 웹툰과 드라마에서도 고전소설이 언급되고 소개되고 있다. 소설, 웹툰, 드라마의 매체별로 언급되거나 소개되는 고전소설은 다음과 같다.

| 매체별 | 등장 고전소설   |
|-----|---|
| 소설  | 〈홍계월전〉, 〈곽장양문록〉, 〈몽옥기린전〉, 〈정수정전〉, 〈소설인규옥소선〉, 〈월하선전〉, 〈이형경전〉, 〈숙향전〉, 〈운영전〉 |
| 웹툰  | 〈홍계월전〉, 〈곽장양문록〉, 〈몽옥기린전〉, 〈소설인규옥소선〉, 〈월하선전〉, 〈숙향전〉, 〈운영전〉                 |
| 드라마 | 〈장화홍련전〉, 〈곽장양문록〉, 〈홍계월전〉, 〈운영전〉   |

소설과 웹툰에서 언급되고 소개되는 고전소설은 거의 동일하나 드라마

는 다르다. 소설에서는 위에 제시된 고전소설들의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고, 이 고전소설들이 인기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한다. 웹툰의 경우는 인물의 대화에서 거론되는 작품들은 곧바로 다음 컷에서 고전소설에 대한 설명과 삽화를 만들어 소개한다. 웹툰 8화에서는 <곽장양문록> 을, 10화, 12화에서는 <소설인규옥소산> 을, 11화에서는 <월하선전> 을, 13화에서는 <숙향전> 을, 45화에서는 <운영전> 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 8화15> - 곽장양문록 소개



<웹툰 13화16> - 숙향전 소개

소설이 인물의 말이나 작가의 설명으로 고전소설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데 반해 웹툰은 한정된 컷 속에서 스토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고전소설을 소개한다.

그러나 드라마의 경우는 고전소설에 대한 구체적인 소개가 나타나지 않

15) 글:도파민, 그림:creativeSUMM, 『옷소매 붉은 끝동』 8화, <https://page.kakao.com>.

16) 글:도파민, 그림:creativeSUMM, 『옷소매 붉은 끝동』 13화, <https://page.kakao.com>.



는다. <곽장양문록>은 덕임이 필사한 작품으로 소개될 뿐 구체적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장화홍련전>과 <홍계월전>, <운영진>은 덕임의 소설 읽기를 통해 내용이 소개될 뿐 소설과 웹툰에서 소개된 다른 고전소설은 드라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드라마가 소설과 웹툰과 달리 고전소설의 내용을 소개하지 않는 이유는 빠른 사건 전개를 통한 재미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건 전개나 재미와 상관 없는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는 드라마에서는 과감하게 생략되는 것이다.

소설과 웹툰에서 상세하게 소개되는 고전소설은 <소설인규옥소설>과 <월하선전>인데 소설과 웹툰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소개된다. 소설에서 <소설인규옥소설>은 “기생과 양반가 도령이 사랑하여 해로하게 된다는 낭만적인 소설”로 소개된다. 덕임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소설인규옥소설>은 양반가 도령이 그리움 하나로 눈발을 헤치며 옥소설을 만나기 위해 달려가는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이고 그 때문에 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감동한다. 덕임은 한문으로 된 <소설인규옥소설>을 읽기 위해 밤새도록 한문 공부를 하여 어렵게 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문본 <소설인규옥소설>을 언문으로 필사하겠다는 결심을 할 정도로 <소설인규옥소설>에 애정을 드러낸다.

웹툰에서 <소설인규옥소설>은 10화와 12화에서 소개된다. 그러나 원천 서사인 소설과 달리 웹툰에서 <소설인규옥소설>은 덕임과 겸사서 홍덕로의 만남의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변용한다. 웹툰 10화에서 덕임은 <소설인규옥소설>을 언문으로 필사하기 위해 제조상궁인 조상궁의 서고에 <소설인규옥소설>을 찾으러 간다. 서고에서 소설책을 빼는 순간 미남자인 홍덕로가 먼저 그 책을 집어들고 덕임과 홍덕로의 첫 만남이 시작된다. 홍덕로는 <소설인규옥소설>에 대해 “밤낮으로 글만 읽던 샌님이 오직 그리움 하나로 눈발을 헤치며 달려가는 대목에서는 나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소”라고 하며 낭만적 사랑에 감동했다는 소감을 말하자 덕임

은 홍덕로에 대한 경계심을 푼다. 이처럼 웹툰에서는 <소설인규옥소선>에 대한 소개가 홍덕로의 목소리로 통해 드러난다. 12화에서도 <소설인규옥소선>을 매개로 덕임과 홍덕로가 두 번째 만남을 가지게 된다. 궁궐에서 다시 우연히 덕임을 만난 홍덕로는 덕임에게 <소설인규옥소선>을 다 읽었는가를 물으면서 자연스럽게 통성명을 한다. 그러면서 <소설인규옥소선>을 읽으면서 상상력으로 남성 주인공을 떠올려야 할 때 자신의 잘 생긴 얼굴을 많이 봐두었다가 연애소설 속 주인공의 모습으로 자신을 떠올리라고 너스레를 떠다. 그러자 덕임은 “꿈에 볼까 두렵습니다.”하고 대응한다.



<웹툰 12화17> - 소설인규옥소선

웹툰에서는 덕임과 홍덕로가 만나고 이야기를 하는 계기로 <소설인규

17) 글:도파민, 그림:creativeSUMM, 『웃소매 붉은 끝둥』 12화, <https://page.kakao.com>.

옥소선》을 활용하면서, 외모에 자신이 있는 흥덕로가 덕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농담하고 덕임은 이것을 재치있게 받아치는 장면에서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게 된다.

〈월하선전〉도 소설과 웹툰 모두에서 자세히 소개된다. 그러나 웹툰에서는 〈월하선전〉이 소설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된다. 소설에서 〈월하선전〉은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한 영조의 손녀 청연군주가 자신의 숙내를 덕임에게 말하면서 소개되는 소설이다. 궁궐에서 공주로 살다가 사대부 가문에 하가한 청연군주는 학문에 정진하고 선비로 살아가는 남편 광은부위가 아내의 마음을 살갑게 챙기지 않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 청연군주는 아이를 출산한 후부터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지만 소설 읽는 재미로 살아간다. 청연군주는 〈월하선전〉을 읽고는 “나도 책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우리 낭군님이 〈월하선전〉에 나오는 직경의 반만 닮았다면 얼마나 좋을까?”(강미강, 『웃소매 붉은 끝동』 1, 67쪽)라고 하면서 자신의 남편이 직경처럼 사랑을 위해 집에서 도망 나와 월하선을 찾아가는 열정적인 남자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토로한다. 소설에서 〈월하선전〉은 청연군주가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남녀의 애정을 소설을 통해 대리만족하는 위로의 작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웹툰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축약해서 〈월하선전〉을 소개하고 있다. 웹툰 11화에서는 소설과 거의 유사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지만 〈월하선전〉의 내용을 한 컷으로 만들어 소개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런데 소설과는 달리 웹툰에서는 〈월하선전〉의 직경의 사랑을 부러워하는 청연군주의 태도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청연군주의 모습은 직경을 사모하는 10대 열광팬처럼 그려지고 다소 우스꽝스럽게 표현되는 것이다.



〈웹툰 11화<sup>18)</sup>〉 - 월하선전

이것은 웹툰이라는 매체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 얼마간 변형을 하여 구성한 것이다. 웹툰은 흥밋거리로서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가볍게 소비<sup>19)</sup>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고전소설을 소개할 때 이런 변형을 보이는 것이다. 소설이 당대 여성의 권태롭고 우울한 삶의 모습을 〈월하선전〉이라는 고전소설 읽기를 통해 대리만족하는 것으로 그렸다면, 웹툰은 이것을 어린 소녀가 소설 속 남자 주인공을 선망하는 수준에서 가볍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웹툰에서는 산과 덕임의 러브 라인은 진지하게 표현하고 다른 스토리는 가볍게 표현하면서 사극 웹툰의 진지함과 가벼움을 적절하게 조율하는데 고전소설도 가볍게 소비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이다.

18) 글:도파민, 그림:creativeSUMM, 『웃소매 붉은 끝동』 11화, <https://page.kakao.com>.

19) 장예준, 『웹툰(webtoon)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 방안』,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402쪽.

#### 4) 고전소설에 대한 평가와 인식

소설과 웹툰에서는 고전소설의 내용 소개뿐만 아니라 소설에 대한 평가도 덧붙인다. 소설의 경우 〈곽장양문록〉의 필사를 끝낸 덕임과 동료들은 〈곽장양문록〉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한다.

[4] 덕임은 투명스럽게 대꾸했다. “난 단지 불행의 원흉을 여인의 악행으로 미루는 건 좀 아니라는 거야. 주어진 상황이 어쨌든 결국 선택을 한 건 사내고, 그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종류의 소설은 변변치 못한 사내를 위한 변명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점이 짜증 난다. 〈중략〉 덕임은 소설을 좋아했다. 그러나 또한 읽으면 읽을수록 위화감도 느꼈다. 여인의 감정을 제대로 짚어내는 글일랑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소설에서는 늘 참고 감내하는 현숙한 여인 아니면 투기하고 쾌락을 부리는 첩만 등장할 뿐, 그 중간이란 없었다. 이런 통속소설을 주로 여인들이 읽는 것이라지만, 딱히 여인들을 위한 글은 아닌 것 같았다. “핑계대고 숨는 건 선비답지 못해.”(강미강, 『웃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17, 55~56쪽)

위의 예문은 덕임이 동료 영희에게 〈곽장양문록〉을 평가하는 대목이다. 덕임은 고전소설 속 남성들이 현처를 두고 요악한 첩에게 빠져 현처를 박대하는 어리석음과 무책임함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이에 비해 영희는 남성들의 잘못된 행동은 요사스러운 첩 때문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첩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덕임은 첩의 잘못보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잘못을 회피하는 남성에게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으며, 〈곽장양문록〉과 같은 소설이 여인의 편에서 여인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곽장양문록〉을 바라보는 덕임의 시각은 〈곽장양문록〉을 읽었던 당대 조선시대 독자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당대 독자들은 오히려 영희의 생각에 더 동조할 것이다. 남성들의 잘못과 실수는 요악

한 첩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후 어지러운 가문을 다시 안정시키는 남성 주인공들에 대해 너그러운 시선을 가지는 것이다. <곽장양문록>에서 가부장제 남성들의 잘못과 무책임함을 꿰뚫어보고 남성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덕임의 시각은 당대 여성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라기보다는 현대 독자들이 조선시대 국문장편소설을 읽었을 때 보일 수 있는 반응이다. 이런 덕임의 시각은 당대의 가부장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여성 주인공 덕임의 내면과 자의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곽장양문록>을 보는 덕임의 시각은 곧 현대 독자의 시각을 반영하여 현대 독자의 인식이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주인공의 성격과 사고를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으로 소설과 웹툰에서는 <운영전>에 대한 덕임과 산의 논쟁도 자세하게 드러난다. 웹툰은 소설에 비해 축약적으로 덕임과 산의 논쟁을 보여주고 있고, 소설에서는 3쪽에 걸쳐 <운영전>을 두고 덕임과 산의 논쟁이 서술된다.

⑤ “너도 읽었느냐?” 덕임은 바른 대로 고했다. 사실 궁녀들 중에는 읽지 않은 자가 없다. “정녕 저런 게 재미있더냐?” 왕은 이마에 핏줄이 블록 튀어나올 만큼 역정을 냈다.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탕녀를 옹호하는 이야기를!” “전하, 운영이 소인배라면 몰라도 탕녀는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불쑥 말부터 튀어나왔다. “모시는 대군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지 않은 죄, 대군이 아닌 자를 사랑한 죄는 분명 중하옵니다. 하지만 선처받을 수 있음에도 스스로 자결을 택했으니, 여인으로서 김 선비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동시에 궁녀로서 대군에 대한 지조를 지킨 셈이지요.” 어찌 여인만 사랑을 갈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막상 여인이 사랑을 갈구하면 왜 그 사랑이 도로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지에 대한 모순은 어디에나 있었다. 세상은 사랑받지 못한 여자에게 손가락질하는 동시에 사랑을 원하는 여자에게도 욕을 했다.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17, 214쪽)

산은 궁녀인 운영이 안평대군을 저버리고 김진사를 사모한다는 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탕녀’의 행동이라고 본다. 그러나 덕임은 운영이 자결함으로써 김선비에 대한 정절과 대군에 대한 지조를 지킨 것이라 보고 자신의 생각을 임금 앞에서 당당하게 말한다. 산은 운영이 계집과 궁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당대 가부장제 남성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면 덕임은 이 시각의 문제점을 간과한다. 덕임은 ‘어찌 여인만 사랑을 갈구해야 하며, 사랑을 갈구하면 그 사랑이 칼날로 되어 돌아오는’ 현실의 모순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덕임은 여인이 자유롭게 사랑을 하지 못하는 당대 여성의 삶에 대한 자각과 부당한 현실을 〈운영전〉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운영전〉을 평가하는 덕임의 시각은 역시 현대 독자들의 시각을 대변한다 하겠다. 현대 독자들의 시각에서 가장 문제적인 고전소설이라고 할만한 〈운영전〉을 선택해 주인공을 둘러싼 작품 속 현실과 당대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가부장제에 매이지 않는 덕임의 주체적인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다.

〈운영전〉에 대한 덕임과 산의 평가가 다른 것처럼 결국 소설에 대한 산과 덕임의 인식도 엇갈린다. 산이 〈운영전〉과 같은 소설이 사특한 환상을 주고, 이같은 잡스러운 글이 세태를 좀 먹는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준다면 덕임은 〈운영전〉의 김 선비와 운영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가슴이 먹먹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남녀의 사랑을 진솔하게 표현한 〈운영전〉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처럼 〈운영전〉을 둘러싼 덕임과 산의 논쟁은 고전소설에 대한 당대의 두 가지 인식을 잘 보여준다. 산이 소설을 고학(古學)을 멀리하는 가볍고 잡스러운 글이라고 평가절하하며 부정적인 것으로 보았던 당대 위정자의 인식을 대변한다면, 덕임은 〈운영전〉과 같은 소설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본성을 표현하여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가치와 효용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대변하는 것이다. 이것은 당대 고전소설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을 짚어내면서 여

성 주인공의 내면과 자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 3. 『옷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고전소설 지식 활용의 효과와 의미

앞에서 논의한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 속에는 고전소설의 향유와 제작, 독서 양상, 유통 방식,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 인식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데 이것은 인물 구성의 측면, 사건 구성의 측면, 독자와 시청자의 수용 측면에서 세 가지 효과와 의미를 지닌다.

#### 1) 여성 주인공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의 창조

여성 주인공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인 성격은 소설, 웹툰,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데 이것은 고전소설을 읽고, 쓰며,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주인공의 행위에서 잘 표현된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여성 주인공 덕임은 궁녀이다. 조선시대 궁녀는 유교사회에서 많은 제한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신분이다. 이러한 제한과 억압의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궁녀는 현실에 순응해야만 했다. 그러나

『옷소매 붉은 끝동』의 여성 주인공 덕임은 궁녀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현실에 순응하지 않는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을 지닌 인물로 성격화된다. 덕임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은 고전소설을 필사하고 향유할 수 있는 인물로 설정되는 것에서 출발한다. 덕임은 궁서체를 매우 잘 쓰고 필사에 능하다. 또한 소설 읽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설을 읽어주고 작품에 대한 평가, 논평까지 할 수 있는 인물로 형상화된다.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는 조선시대에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



을 가진 여성 인물을 창조하기 위해 고전소설의 필사자이면서, 낭독자, 이야기꾼, 논평자의 자질을 가진 여성 인물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앞의 전기수를 통한 향유 방식의 활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설에서 웹툰과 드라마로 각색되는 『옷소매 붉은 끝동』은 공통적으로 덕임이 전기수의 역할을 하며 소설에 대한 안목을 기르고 지적인 내면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덕임은 궁녀들에게 새로운 소설을 읽어주고 궁녀들은 덕임을 통해 세상 밖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드라마에서는 궁녀뿐만 아니라 세손인 산도 덕임의 소설 읽기를 통해 내면에 있던 상처를 바라보게 된다. 영조도 덕임의 이야기에 감동하여 생각을 바꾸게 된다. 이처럼 소설을 읽고 이것을 자기화해서 다른 사람에게 읽어주거나 자기 서사로 이야기하기는 덕임의 지적인 내면을 형성하고 인물의 정체성을 만드는 중요한 행위로 의미화된다.

덕임이 고전소설을 읽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글씨를 잘 써서 고전소설을 필사하는 것도 여성 인물의 지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덕임은 동료 궁녀들과 국문장편소설인 <곽장양문록>을 필사한다. 의빈 성씨가 <곽장양문록>을 필사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의거해 덕임이 <곽장양문록>을 필사하는 것으로 설정했지만 이와 함께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덕임은 문재(文才)가 있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다. 덕임은 글씨를 잘 쓰고 문장력까지 있어서 남의 편지까지 대필해주기도 하고, 한문소설 <소설인규옥소전>을 언문 필사본으로 번역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었다. 이와 같이 덕임은 본격적인 소설 작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문학적 소양을 가진 인물로 설정되는 것이다.

또한 소설과 웹툰에서는 <곽장양문록>이나 <운영전>과 같은 고전소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평가와 논평을 하면서 궁녀로서의 수동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인 자의식을 가진 인물로 구성된다. 덕임은 <곽장양문록>에서는 남성 중심의 소설 내용을 문제 삼고, 현숙한 여인과 패

악한 여인만 그리는 소설 세계를 비판적으로 바라본다. 〈운영전〉을 읽고 나서도 운영의 자유 의지와 사랑을 높이 평가하고 당대 여성의 삶, 궁녀의 삶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다. 또한 당대 소설이 가지는 가치와 효용성을 인정하는 진보적 인식도 가지고 있다. 소설과 웹툰에서 드러나는 고전소설에 대한 덕임의 평가와 논평은 덕임의 주체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데 중요한 소재로 활용되는 것이다.

소설, 웹툰, 드라마는 궁녀라는 여성 주인공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인 성격을 창조하기 위해 고전소설을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고전소설에 대한 감식안을 가진 여성 주인공을 전면화시킨다. 이것은 소설, 웹툰, 드라마의 주 독자층이며 시청자인 MZ세대의 주체적인 여성상을 고려한 인물 구성이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은 종이책 2권으로 출판된 후 다시 웹소설로 제공되었고, 이에 힘입어 웹툰과 드라마로 각색되어 인기를 얻었다. 사극 로맨스를 표방한 『옷소매 붉은 끝동』 시리즈의 주요 독자와 시청자는 MZ세대인 10~30대 젊은 여성들이다. MZ세대가 추구하는 지적이면서 주체적인 여성상은 고전소설을 필사하고 낭독하며, 자기 목소리로 고전소설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성 인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궁녀로 사는 덕임의 현실은 여성의 지성과 자유를 가두는 공고한 벽이지만 이러한 공고한 벽에 맞서는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은 소설, 웹툰, 드라마의 서사적 추동을 위해 필요한 여성 인물의 자질이면서 동시에 현대 독자와 시청자가 선호하는 여성상이기도 한 것이다.

이런 여성 인물의 내적 자질과 성격은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작가 강미강의 창의적 발상과 노력으로 창조되었다. 또한 웹툰과 드라마에서도 여성 인물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은 그대로 이어진다. 고전소설을 읽는 전기수, 고전소설을 쓰는 필사자, 고전소설을 평가하는 비평자의 자질을 모두 가진 여성 주인공의 창조는 현대 매체가 고전소설을 활용하여 스토리텔링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잘 알려진 고전소설의 내용

이 아니라 고전소설의 향유와 제작을 둘러싼 방식, 고전소설의 메타 담론을 활용해 현대 독자와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의 성격을 창조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 2) 긴장과 해소, 웃음을 통한 흥미 창출

한편으로 웹툰과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과 고전소설 작품 소개를 활용하여 긴장과 해소, 웃음을 통해 흥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앞에서 살펴본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의 향유와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는 원천 서사인 소설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 연원하여 웹툰과 드라마에서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드라마에서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의 향유는 시청자의 긴장과 해소를 불러일으키고, 웹툰에서는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로 독자의 웃음을 유발하여 흥미를 창출한다. 이것은 소설을 웹툰과 드라마로 매체 전환하면서 생기는 효과이다.

우선 소설에서 드라마로 매체가 전환되면서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의 향유 양상은 새롭게 변형되는데 전기수 모티프가 확장된다. 드라마는 소설이나 웹툰에 없는 이야기와 사건을 새롭게 만들어 각색하는 것이다. 드라마는 1시간가량 진행되는 서사 속에서 매회 갈등 상황과 위기를 만들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매체적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사건의 긴장과 해소에 집중하는 스토리를 구성하게 된다. 소설에서는 덕임이 전기수가 되어 소설을 향유하는 것이 인물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을 창조하는 효과를 발휘했다면 드라마에서는 새로운 전기수 모티프를 만들어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 긴장과 해소를 통한 재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드라마에서 덕임의 소설 읽기와 이야기하기는 덕임이 정조의 후궁이 되기 전 궁녀로 있을 때인 전반부의 갈등을 만들고 해소하는 사건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덕임이 정조의 후궁이 된 후에는 덕임과 정조의 갈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덕임의 소설 읽기와 이야기하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다. 전기수 모티프는 드라마 전반부의 긴장과 해소를 만들기 위해 창안된 사건 구성인 것이다.

드라마가 시작되는 1회에서부터 〈장화홍련전〉을 읽는 덕임의 소설 읽기는 극중 긴장을 만드는 효과를 발휘한다. 2회의 궁궐의 호환(虎患) 사건에서도 덕임의 소설 읽기는 갈등을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3회에서 구성되는 덕임의 이야기하기는 죽음의 위기에 빠진 자신을 구한다는 점에서 긴장과 해소의 구성을 보여준다.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덕임의 자기 서사는 마치 〈천일야화〉의 세헤라자데가 살기 위해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목숨을 이어가는 것과 유사하다.

이처럼 드라마에서 새롭게 각색되는 덕임의 소설 읽기와 이야기하기는 영상 매체의 특성에 따라 긴장과 해소를 통해 흥미를 만드는 방향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이것은 원천 서사인 소설과 다른 드라마 매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드라마에 비해 웹툰 『옷소매 붉은 끝동』은 드라마보다 원천 서사인 소설에 더욱 밀착해서 만들어졌다. 웹툰에서는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은 원천 서사인 소설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고전소설을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소설과 다른 방향성을 보여준다.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소개되는 고전소설은 주로 덕임의 시각에서 줄거리가 소개되고 고전소설이 인기 있는 이유가 설명되어 자세하고 진지한 반면, 웹툰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전소설의 핵심만 간략하면서도 가볍게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웹툰 10화와 12화에서는 한문으로 된 애정소설인 〈소설인규옥소선〉을 매개로 덕임과 겸사서 홍덕로가 만나는 장면을 구성하였고, 또한 〈소설인규옥선〉을 활용해 웹툰 특유의 웃음과 가벼움을 창출한다. 이것은 웹툰 11화에서 소개되는 〈월하선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소설에서 〈월하선전〉은 열정적인 사랑과 여성들의 우울한 삶을 위로하는 진지한

고전소설로 소개되는 데 반해 웹툰에서 〈월하선전〉은 청연군주가 〈월하선전〉의 남자 주인공 직경을 선망하는 대상으로 생각하며 가볍게 〈월하선전〉을 읽는 것으로 그려냄으로써 독자에게 웃음을 선사한다.

원천 서사인 소설이 고전소설의 내용과 소설사적 의의를 참고하여 고전소설을 소개하는 방향으로 고전소설을 활용했다면, 웹툰에서는 고전소설의 핵심만 간단히 소개하고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하는 것이다. 이것은 줄글을 찬찬히 읽고 의미를 해석하는 소설과 달리 스크롤바를 이용해 단시간에 보는 웹툰의 향유 방식이 요구하는 변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역사와 고전을 소재로 창작된 사극 로맨스 소설이 지니는 진지성을 웹툰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웹툰은 웃음과 같은 재미를 만드는 요소가 필요한데 〈월하선전〉의 소개에서 나타나는 이런 변형은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드라마와 웹툰에서는 긴장과 해소, 웃음이라는 재미를 창출하기 위해 원천 서사인 소설과는 달리 고전소설의 향유 방식과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를 각 매체에 적합하게 변형하고 있다. 드라마는 전기수 모티프를 시청자의 긴장과 해소를 이끄는 사건으로 재창작하였으며, 웹툰은 고전소설 작품을 웹툰에 웃음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하여 소비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전소설을 드라마와 웹툰이라는 매체로 스토리텔링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변형과 전략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하겠다.

### 3) 고전과 전통문화 재현을 통한 지식과 교양 함양

마지막으로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고전소설의 제작과 독서 양상, 유통 방식의 활용과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 인식을 활용함으로써 독자와 시청자의 수용 측면에서도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효과를 발휘한다. 독자와 시청자는 소설을 읽고, 웹툰을 보며,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독자와 시청자는 스토리의 전개, 서사의 진행에서 발견하는 흥미뿐만 아니라 소설과

웹툰, 드라마에 재현된 고전과 전통문화를 통해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보다 수준 높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받는다.

일례로 소설, 웹툰, 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공통적으로 〈곽장양문록〉이라는 국문장편소설이 필사되고 읽히는 과정이 잘 드러난다.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는 〈곽장양문록〉을 완성하기 위해 덕임과 동료들이 공동으로 〈곽장양문록〉을 필사하고 이것을 완성해 임금에게 올리고 임금이 〈곽장양문록〉을 읽는 과정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곽장양문록〉이 3부작으로 창작된 연작형 소설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소설에서는 〈곽장양문록〉의 내용이 소개되고, 이 작품에 대한 논평까지 덧붙이면서 〈곽장양문록〉이 어떤 소설인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웹툰에서는 〈곽장양문록〉에 대한 논평은 없지만 역시 이 작품에 대한 소개가 드러난다. 드라마에서는 〈곽장양문록〉을 필사하는 모습과 〈곽장양문록〉의 전편과 후편이 거론되는 장면도 나온다.

웹툰 7화에서는 덕임과 그 동료들이 〈곽장양문록〉을 필사하는 내용을 재현하였는데, 웹툰 7화가 연재되는 카카오페이지에는 〈곽장양문록〉을 소개하는 아래와 같은 댓글이 달렸다.



‘라바’라는 닉네임을 쓰는 독자가 인터넷에서 <광장양문록> 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요약하여 댓글을 썼는데, 이 댓글에는 재댓글이 24개나 달리고 ‘좋아요’도 804개가 붙을 정도로 웹툰을 읽는 독자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재댓글 중에는 라바의 <광장양문록> 소개에 감사하면서 『웃소매 붉은 끝동』 을 통해 <광장양문록> 같은 옛 소설을 알게 되었고, 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내용도 있다. 이처럼 소설, 웹툰, 드라마를 본 독자와 시청자들은 그동안 몰랐던 <광장양문록> 이라는 국문장편소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광장양문록> 뿐만 아니라 소설과 웹툰에서는 많은 고전소설이 등장하고 이에 대한 소개와 설명, 평가 등이 나타난다. 소설과 웹툰에서 등장하는 <홍계월전>, <숙향전>, <운영전> 은 비교적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고전소설이지만 <광장양문록>, <몽옥기린전>, <소설인규옥소산>, <월하선전>, <이형경전> 등은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고전소설이다. 소설과 웹툰을 읽는 독자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고전소설을 발견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작품이라 고전소설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작품을 발견할 때는 이 작품이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조사하여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소설과 웹툰을 보는 독자는 소설과 웹툰에서 소개되고, 논평되는 고전소설을 통해 고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고전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한편으로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활용되는 전기수나 세책점을 재현하는 장면들은 당대 조선시대 독서 문화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이 종이책을 목독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적 전문 낭독자가 소설을 대중에게 읽어주는 것은 현대와 비교하면 매우 생소하고 흥미로운 풍경이다. 또한 시전의 세책점에서 자신이 필사한 소설을 팔고, 좋아하는 소설책을 빌려 읽거나 사는 것도 현대 독자나 시청자에게 새로운 볼거리이면서 조선시대 소설 향유 문화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 향유와 세책점을 매개로 한 고전소설의 유통에 대한 재현은 독자나 시청자가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소설에서 웹툰, 드라마로 이어지는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옷소매 붉은 끝동』의 가장 큰 흥미 요소는 덕임과 정조의 애정 스토리라고 할 수 있지만 고전소설과 고전소설을 둘러싼 향유와 제작 방식, 유통 방식의 재현 또한 독자와 시청자의 이목을 끄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고전소설과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독자와 시청자가 『옷소매 붉은 끝동』 시리즈를 선택하고 향유하게 하는 또 하나의 흡인력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전소설 작품과 고전소설을 둘러싼 향유와 제작, 독서 양상, 유통 방식에 대한 지식은 소설 『옷소매 붉은 끝동』을 만들게 한 원천 소스라고 할 수 있다. 고전소설은 여전히 고전과 전통문화를 재현하여 지성과 교양을 함양하는 보고(寶庫)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 4. 맺음말

소설, 웹툰 드라마로 스토리텔링되는 『웃소매 붉은 끝동』은 어떤 문화 콘텐츠보다 고전소설의 세계와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을 잘 활용하여 대중들에게 다가가는 완성도 높은 콘텐츠이다. 무엇보다 고전소설의 내용을 원천 소스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고전소설을 둘러싼 향유와 제작, 독서 양상, 유통 방식,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 논평, 평가 등에 새롭게 눈을 돌려 고전소설 텍스트를 넘어선 새로운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웃소매 붉은 끝동』의 스토리텔링은 전기수를 통한 고전소설 향유 방식을 활용하고, 궁녀의 공동 필사, 독서 양상, 세책점을 통해 고전소설을 유통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더불어 고전소설에 대한 소개와 평가, 인식도 스토리텔링에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인물 구성의 측면에서는 여성 주인공의 지적인 내면과 주체적 성격을 창조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이것은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효과이다. 사건 구성의 측면에서는 갈등 상황을 만들어 긴장과 해소로 드라마 시청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웃음을 만들어 웹툰 독자의 흥미를 창출하는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드라마와 웹툰으로 매체가 전환되면서 창출되는 효과이다. 독자와 시청자의 수용 측면에서는 고전과 전통문화에 대한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효과를 드러내는데, 이것은 소설, 웹툰,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웃소매 붉은 끝동』 스토리텔링의 성공은 원천 서사인 소설 『웃소매 붉은 끝동』의 작가 강미강의 노력과 창의성에서 비롯된다. 작가는 소설 『웃소매 붉은 끝동』을 창작하기 위해 의빈 성씨가 필사했다는 <곽장양 문록>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를 조사하여 소설 창작의 실마리로 삼았다. 또한 당대에 향유되었던 고전소설을 조사하여 읽었으며, 전기수와 세책점

과 같은 고전소설의 향유와 유통에 대한 내용을 탐구하였을 것이다. 역사 속 인물인 정조와 의빈의 사랑을 그리면서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을 버무려 여성 주인공과 구체적 사건을 구성하고, 당대의 소설 문화를 재현하여 독자와 시청자를 사로잡는 콘텐츠를 만든 것은 순전히 원작자의 역량이다.

그러나 『옷소매 붉은 끝동』의 성공은 작가의 개인적 역량 때문이지만 작자가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여 『옷소매 붉은 끝동』과 같은 성공적인 콘텐츠를 창작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접근하기 쉬운 고전소설 자료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작가를 비롯하여 콘텐츠 창작자나 대중들이 손쉽게 고전소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sup>20)</sup>은 고전소설 연구자의 몫이고,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어로 번역되지 않은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하는 것은 여전히 고전소설 연구자가 해야 할 일이다. 장편소설인 경우는 연구자가 완역과 다른 형태의 축약본이나 요약본<sup>21)</sup>을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 고전소설의 창작 배경, 자세한 줄거리 소개, 고전소설의 의미나 의의 설명, 현대 독자가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소개하는 대중서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고전소설을 둘러싼 향유와 유통, 작가와 독자, 베스트 셀러, 화제 소설 등을 쉽게 설명하는 대중서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대중서의 출판과 함께 웹 사이트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고전소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고전소설 연구자의 노력이 수반될 때 고전소설에 대한 지식과 세계를 다방면으로

20) 정선희는 문화콘텐츠를 만드는 현장에서 창작과 제작에 종사하는 이들이 좀더 풍부한 고전문학 제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가공하거나 쉽게 설명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고전소설 연구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정선희, 「문화콘텐츠 원천소재로서의 고전서사문학」, 『한국고전소설의 교육적 확산과 문화적 전파』, 보고서, 2019, 172~173쪽.

21) 정혜경은 분량이 많은 장편소설을 완역과 다른 형태의 축약본으로 만들 때 핵심 내용과 흥미로운 서사를 중심으로 서사를 재편집하는 방향과 축약된 형태로 유통된 이본을 대상으로 축약본을 제작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했다.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46쪽.

활용한 『웃소매 붉은 끝동』 과 같은 성공적인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 청어람, 2022, 9~480쪽.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2, 청어람, 2022, 9~439쪽.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1~5, 청어람로맨스, 네이버 시리즈, 2021.2. 26.  
 (<https://series.naver.com>)  
 연출: 정지인·송연화, 극본: 정해리, MBC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2021.11.12.~ 2022.01.01.  
 정해리, 『옷소매 붉은 끝동: 정해리 대본집』 1, 청어람, 2022, 22~554쪽.  
 정해리, 『옷소매 붉은 끝동: 정해리 대본집』 2, 청어람, 2022, 22~526쪽.  
 글: 도파민, 그림: creativeSUMM, 원작: 강미강, 『옷소매 붉은 끝동』, 카카오 페이지, 2021.9.30.~2022.8.11 연재 중. (<https://page.kakao.com>)
- 권순궁·옥종석, 「고전소설과 콘텐츠, 그 제작 양상과 개발의 전망-영화콘텐츠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5~46쪽.  
 김근태·정병현·서인석·이승복·신해진·최귀목, 『한국고전소설의 이해』, 박이정, 2012, 13~438쪽.  
 김종철, 「장편소설의 독자층과 그 성격」, 『고소설의 저작과 전파』, 아세아문화사, 1995, 433~471쪽.  
 서성은, 『크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커뮤니케이션북스, 2018, 2~96쪽.  
 이민희, 『조선의 베스트셀러』, 프로네시스, 2007, 15~159쪽.  
 장예준, 「웹툰(webtoon)에서의 고전 서사 활용 방안」,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395~428쪽.  
 정병설, 『조선시대 소설의 생산과 유통』,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 17~307쪽.  
 정선희, 『한국고전소설의 교육적 확산과 문화적 전파』, 보고사, 2019, 15~299쪽.  
 정혜경, 「국문장편소설의 현대적 출판과 대중화 전략」, 『한국고전연구』 56, 한국고전연구학회, 2022, 123~161쪽.  
 조수삼 지음, 안대희 옮김, 『추채기이』, 한겨레출판, 2010, 27~255쪽.  
 지연숙, 〈몽옥쌍봉연록-곽장양문록〉 연작 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97, 1~106쪽.

ABSTRACT

Effect and meaning of knowledge application of classical novel  
in the story-telling of 『The Red Sleeve』

Kim, Mun-he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aspects of knowledge application of classical novel and its effect and meaning in 『The Red Sleeve』. 『The Red Sleeve』 is a representative work of cross-media story telling which is adapted for webtoon and drama after it is created as a novel. The story-telling in 『The Red Sleeve』 commonly uses a enjoyment formula of classical novel through Jeon-gi-soo(傳奇叟). It also actively uses joint transcription by court lady, reading aspects of classical novel and way of classical novel circulation through Se-chaek-jeom(貰冊店). It reveals introduction, assessment and awareness about classical novel as well.

Three effects and meanings are revealed by using introduction, assessment and awareness about classical novel which are realized by the way of enjoyment, production and reading aspect and circulation method of classical novel. In terms of character composition, it reveals the effect of creating intellectual mentality and independent personality of heroin. It is common effects in novel, webtoon and drama. It reveals the effects of building and resolving tension and creating interest by making laughter in respect of framework of events. It is a effect which is created while being converted to drama and webtoon. In terms of appreciation from reader and viewer, it reveals the effect that makes the reader and viewer cultivate knowledge and refinement about classics and traditional culture.

In order to help create successful contents like 『The Red Sleeve』 accurate and easily accessible material about classical novel should be provided. It can be a duty of classical novel researcher to provide relevant

material about classical novel which is easily accessible to writer, contents creator and the public.

**Key Words** The Red Sleeve, novel, webtoon, drama, story-telling, classical novel knowledge, creating personality, creating interest, cultivation of knowledge and refinement

논문투고일: 2022.07.20.  
심사완료일: 2022.08.05.  
게재확정일: 2022.08.08.